

허태구 “소현세자의 심양역류와 인질체험”

병자호란(1636년) 패배로 인해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 종식하고 청과 君臣관계 맺음
소현세자가 인질로 1637년부터 1644년까지 8년여 시간을 청의 수도 瀋陽에서 보냄

청이 조선에 인질을 요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목적의 글
논문이 부각한 점은 청이 몽골에 인질을 보내고 항복한 고려의 前史를 언급해 조선 압박

1. 청의 인질 요구와 고려 前史의 활용

청이 협상 과정에서 인조의 親子를 인질로 보내줄 것을 요구

특히 병자호란 전후, 청은 조선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려의 前史를 언급

청은 고려의 대외관계, 특히 몽골(원)과 고려의 교섭과정 및 이후 관계에 대해 알고 있음
예: 청이 보낸 國書 - “너의 조선은 일찍이 大元에 臣服하여 해마다 공물을 바치지 아니하였
던가? 오늘날에는 어찌하여 망령되어 이다지도 스스로 놓은 체 하는가? 너희 조선은 선대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三朝에 歸附하여 해마다 공물을 바치고 稱臣하여 보존을 도모하지 않
았던가?”

특히 고려의 對蒙 강화 교섭의 실마리가 고려 고종의 태자가 몽골에 들어가 쿠빌라이를 접견
함으로써 풀린 전사를 염두에 둬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 인질은 병자호란의 항복 조건을 이행하는 최후의 안전판이고, 양국간의
현안을 조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섭 통로임 (심양일기의 많은 내용이 講和 조
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임)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와 조선 내의 부정적인 시선이 이러한 청의 요구로 더 증폭됨 (특히 인
조는 讓位를 가능성에 대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2. 청 제국의 복합적 특성과 소현세자의 인질 체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참석 요구/권유 받았던 행사는 대부분 청 황실과 관련
특히 유교식뿐만 아니라 만주주 전통의 샤머니즘적 요소가 감 (청 태종의 治兵 의식)
활쏘기나 말타기 등 만주족의 尙武적, 유목적 전통과 관련된 야외 활동

이는 청 태종이 요, 금, 원 前史를 고찰한 뒤 이들이 지나치게 漢族의 문화에 동화되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 자신의 전통, 언어, 풍속을 대대로 보존하도록 함

특징적인 것은 청국에 끌려온 조선 백성과의 만남에 관한 기록임

3. 심양 인질의 대명인식과 대명의리

세자는 斥和론, 反淸론을 주장하다 끌려온 조선 신료에 대해 각별한 관심 보임

세자와 그 무리는 또한 명나라와 관련된 인물이나 유적에 특별한 관심 보임 (명 출신 포로와의 만남)

중요한 점은 당시 심양의 조선인들은 명청전쟁의 추이에 대해 유례없이 풍부한 정보를 가짐
조선은 교전중인 명과 청의 우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 대한 사대를 당연시 하지 않음

안재원 “아담 샬, 순치제, 소현 세자: 아담을 바라보는 두 시선 사이에 있는 차이에 대해서”

『중국포교사』

1581년부터 1669년까지 벌여졌던 중국에서의 예수회 선교 활동의 성과 정리

중요 내용 - 아담 샬이 서양의 천문학을 기반해 달력을 지어 순치제에게 바쳤다는 점과 그 대가로 북경 도성 안에 천구당의 건축 허가 받았고, 성당을 지음

『중국포교사』를 통해서 본 예수회 신부 아담 샬에 대한 순치제와 소현세자(Corea Rex)의 시선 차이 분석

II. 아담 샬을 바라보는 순치제의 시선

1. 순치제는 아담 샬의 1644년 8월 초에 일어난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계기로 시헌력(튀고 브라헤의 이론에 기초한 서양력)에 감동하고 신하(훌륭한 덕을 지닌 신하)로서의 아담 샬에 대한 총애가 대단함

2. 천주교에 대해서 순치제는 유교, 불교와 같은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세례를 받지 않음 (자신이 天子라는 생각이 강함)

3. 아담 샬을 바라보는 순치제의 시각에서 西學과 西敎의 구분이 발견됨. 서양 학문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예찬을 하지만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는 신하 아담 샬의 개인적 덕성으로 국한

III. 아담 샬을 바라보는 소현 세자의 시선

소현세자의 입장을 확인해줄 수 있는 편지 두 통이 수록

1. 소현세자와 아담 샬은 군신의 관계가 아님 친구 혹은 형제 관계임 (“마치 같은 피로 맺은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 소현세자에게 천주교는 유교와 불교 가르침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입장 (“책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확하고 덕을 닦는 데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야기할 정치적 파장과 직결된 것으로 추정

하지만, 자신을 보필하던 內侍의 세례를 허락하고 아담 샬에게 남기고 떠남

3. 순치제와 같이 西學과 西教를 구분하나 서양종교를 더 중시함 (편지에서 천문학 등 서양의 학문보다는 천주의 법에 대한 예찬이 보임)

코리아 환관의 존재 - 아담 샬에게서 학문과 종교를 배우고 돌아오라고 명함.

이 환관의 존재가 아담 샬이 죽은 해인 1669년에 나옴 (“기억이 비상한 코리아 환관”)

이를 보면 아담 샬을 가까이서 보좌했을 것임

이러한 소현세자와 함께 동행한 300여 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왜냐하면, 이후 북학파나 실학파의 등장에 직접적인 매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음)

김남윤 “『소현심양일기』 해제”

1637년(인조15) 1월 30일(남한산성에서 항복한 뒤 세자가 청의 군영에 머물게 된 일부터 2월 8일 철군하는 청군과 이동, 4월 10일 심양 객관에 도착)부터 1644년(인조22) 8월 18일(1월에 세자가 빈궁과 서울에 다녀옴, 4월 북경 입성, 6월 귀환, 8월 18일 북경 천도)까지의 소현세자 동정에 관한 일기 - 그러나 1644년 8월 19일부터 1645년 2월 16일까지의 6개월 동안의 일기는 전하지 않음 (후대에 일실 혹은 고의 인멸)

의의:

청이 제국으로서의 통치체제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명을 공략하는 기간의 기록 (조청관계, 명말 청초의 역사, 외교 관계, 만주족 문화 등 다양한 정보 담김)

형식:

날짜와 날씨, 세자의 소재, 그 날 일어난 일을 기록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자가 심양관소에 머물렀다(있었다)’라고만 함

세자의 일상은 평상시 문안과 공부(書筵)임

하지만, 황제의 명에 따라 궁중행사와 사냥, 西行(명 공략을 위한) 등 참여하고 조선-청 사이에 현안도 처리

세자의 질병에 대한 자세한 기록

내용:

대체로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나,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청측의 요구와 책망, 이에 대한 세자의 답변은 그 상황과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

심양관소:

세자와 봉림대군 부부 등등 500여 명 상주 예상, 경비의 일정부분은 청에서 지급, 조선에서 사신, 관원이 오고, 청의 요청에 따라 군병이 들어오거나 교체될 때 심양관을 거침

조청관계

조선은 淸에 항복하여 君臣관계를 맺어 事大의 예를 행하고 조공을 바쳤으나 淸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바뀌지 않음 (당시 집권 서인세력은 인조반정의 명분으로 대명의리를 내세웠고 淸에 항복한 이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음. 또한 명과 전쟁을 하며 과도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淸에 대한 반청의식도 높음)

淸도 조선이 명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계속 가짐 (강화조건 여기는 일 - 남한산성 수축 등 이면 세자 불러 추궁)

淸은 조선을 高麗라고 칭하고 조선인은 麗人이라고 해서 명이 준 국호 사용하지 않음

특히 중요한 것은 被擄人(피로인)의 贖還(속환)과 走回人(주회인), 向化人(향화인)의 刷還(쇄환) 요구, 採參人(채삼인)과 越境(월경) 문제 등임

피로인 - 강화 후 붙잡힌 포로로 서북 변경의 조선인이 많음. 가족이 와서 속환하게 했고 가적이 계속 오름

주회인 - 淸에 잡혀 있다가 몰래 조선으로 도망쳐 돌아간 자/향화인 - 女眞인으로 조선에 귀화했던 자 - 淸은 이들 모두 淸에 쇄환해야 한다고 하나 이들을 찾아 압송하는 일이 쉽지 않음